

# 데이터 주도 농업 혁신 전략 모색

### 농진청·아태 식량비료기술센터 공동으로 국제 학술토론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9일 아시아·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와 함께 분청 1층 국제회의장에서 '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 국제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 연구 개발 분야의 발전과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데이터주도농업에 관심 있는 국내 전문가 150여 명을 비



농촌진흥청은 29일 아시아·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와 함께 분청 1층 국제회의장에서 '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 국제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김윤상 기자

롯해 일본, 대만 등 7개 나라의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센싱 기술 동향과 국내외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농업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도 갖었다.

심포지엄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 연구원들과 협력 방안 및 미래 협력 사업 발굴을 논했다.

농촌진흥청 황규석 차장은 "농업의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으로 아·태 지역의 나라뿐만 아니라 FFTC와 정보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중기중앙회,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스스로 일자리의 관측은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내놨다.

중앙회는 1600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측은 일자리에 대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재직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지문을 거쳐 29일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총 7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관측은 정도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급여수준'과 '근로시간' 등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기준들에 '회사 위치'와 같이 최근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급여수준', '근로시간', '회사의 성장성(매출액·부채비율)', '회사의 안정성(업력·사원수·영업이익)', '대중교통 편리성' 등 계약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5가지 요소와 '고용안정성'과 '조직문화' 등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2가지 요소가 고려됐다. /김윤상 기자

### 전북중기청, 예비창업자

### 전북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이 29일 전북소상공인회관에서 '예비창업자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예비창업자 18명이 참석하여 성공창업을 다짐했다.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폐업을 급증(3년내 62%)에 따른 (예비)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과 점포체험실습 등 총 5개월에 걸쳐 운영하는 창업전문 교육과정으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이론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심사를 거쳐 16주간 실제로 점포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경영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김윤상 기자

###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

### 농업가치 확산 희망포럼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일) 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은 29일 농협동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여성단체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북 도농협동 희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북 도농협동희망포럼은 농협도농협동연수원 권갑하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농업농촌 가치 전파와 도농협동국민운동 실천 다짐문' 낭독, '도농협동국민운동 실천기' 전달식 등 국민운동 확산 세례로 마무리로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 7명이 대통령표창 등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신협 임직원·조합원들 대통령표창 등 수상

###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 7명이 대통령표창 등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선 서민금융 분야의 유공자로의 왕신협 박세웅 상임이사장 대통령표창을, 미추홀신협 여선구 이사장이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충주중앙신협의 김영택 이사장과 달구벌신협의 안재호 부장이 금융위원장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동서울신협의 강열선 조합원과 청주신협의 정교순 조합원, 의정부 신우신협의 배영순 조합원이 저축부문 유공자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윤식 중앙회장은 "금융의 날을 맞아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의미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하며 "서

민금융을 선도해 온 신협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고, 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북돋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의왕신협의 박세웅 상임이사장은 신협과 함께 한 지난 30여 년간 '신협은 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조합원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는 물론 취미교실과 테마여행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신협중앙회가 인정하는 사업 우수조합에 10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2019년에도 각종 캠페인 전 부문에서 상반기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박 상임이사장은 "30여 년 동안 서민금융의 최전방에서 조합원들의 경제 동반자로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데 대해 조금이라도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나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미추홀신협의 여선구 이사장은 산곡동성당에 근무하던 중, 본당 신부의 지원으로 1972년 34인의 발기인을 모아 미추홀신협을 설립했다. 이후, 조합원-신협 임직원-이사장으로 함께하며 미추홀신협을 외연과 내연을 갖춘 지역을 대표하는 믿을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시켰다. 무엇보다 지역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 사업을 추진, 낙후된 지역에 조합 명의의 복지관을 개설하고, 신협 어린이집과 노인원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 이사장은 "과거와 현재까지 미추홀신협과 함께 한 모든 임직원들 덕분에 받는 상인만큼 그분들께 감사의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 하림, 올해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수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25일 농협은행 중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 제6회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시상식에서 전라북도 우수 육계가공 업체인 (주)하림(대표자 박길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의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은 국내 우수 농식품기업을 시

상하는 행사로 (주)하림을 비롯한 10개의 농식품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기업은 NH농협은행과 거래 중인 전국의 농식품기업 중에서 기업 경영성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성장 잠재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수상 기업에게는 대출금리 우대, 기업 컨설팅 무료 제공, 임직원 및 가족



지난 25일 농협은행 중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 제6회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시상식에서 (주)하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청 팜스테이 마을체험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하림은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국산 축산물 소비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와 상생 협력하는 우수 농식품기업이다.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을 수상한 박길연 대표이사는 "저희 하림은 사람과 동물이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여 대한민국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기업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농식품 기업에 2019년도 1조 7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신규 지원했고, 9월말 현재 약 23조원의 농식품 기업여신을 지원하고 있는 등 농식품기업 성장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우리 지역 농식품 기업의 성장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확대로 직결되어 농업인 실익증진으로 귀결된다"며 "전라북도 우수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상생협력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액젓 비린내 감소·저염화 기술 개발

### 식품연, 누룩전통 청주발효균주 활용

청주발효균주를 활용하여 액젓의 문제점인 비린내와 과도한 염도를 동시에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누룩전통 청주발효균주(코지첨가법)를 활용해 액젓(어간장)의 높은 염도와 비린내를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연 가공공정연구단 김병목 박사팀에 따르면, 임국(전통 청주 발효균주)으로 액젓(어간장)을 제조한 일반 액젓에 비하여 30% 이상의 식염농도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비린내 또한 80% 이상 제거됐다.

액젓을 섭취하는데 있어, 비린내와 과도한 나트륨 섭취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과잉 섭취할 경우 혈관 내 삼투압이 상승하며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이 팽창하고 혈관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혈압상승 및 고혈압 발생을 유발할 수 있게 주의할 부분이다. 201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권고량(소금 5g)의 약 2배 수준으로 연령, 소득,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군에서 목표섭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의 경우, 나트륨 섭취를 3분의 1 가량 줄여 국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5년 연장되는 결과를

거져왔다. 소금을 넣는 주목적은 부패미생물의 증식억제와 동시에 염장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 증식을 위한 선택적 환경조성이다. 따라서 이는 효소 작용을 위해서 또는 미생물의 증식을 위한 종속영양분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간장의 저염화 및 비린내제거를 위해서는 초기발효환경(산성도, 온도 등)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로 액젓의 식염농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린내 또한 효과적으로 제거 가능했다. 또한 어간장의 경우에도 30% 이상의 식염농도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비린내 또한 80% 이상 제거시켰다. 이는 어체의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분해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이용하는 경우, 발효초기 산성도를 낮추고 발효과정 중 과도한 휘발성암기질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연 김경탁 전략기술연구본부장은 "액젓은 가정용 조미료로서기에 주의할 부분이다. 201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권고량(소금 5g)의 약 2배 수준으로 연령, 소득,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군에서 목표섭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의 경우, 나트륨 섭취를 3분의 1 가량 줄여 국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5년 연장되는 결과를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21명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운용분부는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금운용분부는 이번 채용에서 운용전략, 해외증권 분야를 비롯하여 국내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 등 기금운용 각 분야 전문가 총 2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분부는 올해 2회에 걸친 채용을 통하여 총 36명을 채용하였으며, 이번 채용을 통하여 총 280명의 기금운용직 정원을 모두 채용 계획이다.

기금운용분부는 전문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투자실무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직을 선발하며, 이번 채용을 통한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다가오는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을 더욱 든든히 운용할 수 있도록 역량과 열정 있는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사 접수는 이날 29일부터 11월 1일(오후 6시 마감)까지 진행하며, 각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nps.or.kr>) 또는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http://fund.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화식우 해외 수출 방안 찾아

### 남원시·남원축협·생진원, 설명회 개최

남원시(시장 이환주), 남원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병무),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지난 28일 남원축산업협동조합에서 남원 화식우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생진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이승재 단장은 국내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방안, 한우고기의 수출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업단에서 현장 애로기술로 개발 중인 기술 분야 그리고 남원 화식우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화식우는 곱여 만든 재래식 여물을 먹인 소를 말한다. 여물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나서 소가 좋아하며 무엇보다도 소화가 잘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건사료 섭취 한우에 비하여 화식우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단맛과 감칠맛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씹힘성이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남원 화식우는 21농가 2,077두수가 사육중이며, 화식우 사육농가 1등급 출현율이 2016년 79%, 2017년 69.5%, 2018년(5월 기준) 85.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식우 비육우 두당 생산비는 건사료 사육농가에 비하여 100~150만원 정도로 낮아 화식우 사



육농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남원축산업협동조합 강병무 조합장은 "남원 화식우 사육농가, 남원시 그리고 생진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과 협력하여 남원 화식우가 해외로 수출되어 사육농가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남원시에서는 화식우(쇠족한우)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장공약사업으로 10억8400만원의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투자하여 화식우, 급여기, 출아 장려금 등의 지원사업으로 쇠족한우 영농조합 법인 구성 및 농가표준화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남원시에서 생진원으로 발주한 남원시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김윤상 기자